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

김 유 정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 연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언론학 석사 및 박사

□ 저술: 디지털시대의 법제이론(역), 다매체시대의 케이블 TV의 경쟁력, 1996년 미국 통신법 분석 등 다수

1. 시작하는 말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도래에 대해 우리는 매체 발전론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왔다. 새로운 매체가 제공해주는 새로운 기능만이 강조된 듯하다. 그러나 매체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매체의 영향력 또한 증가됨을 의미한다. 증가된 매체의 영향력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체의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체를 운영하는 산업차원에서 매체를 육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상업적인 면을 추구한 결과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켜왔다. 특히 완전한 인격체로 성숙되기 전의 청소년들은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 앞에서는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약자이다. 이런 까닭에 각 국가들은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이 V 칩규정과 최근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유해매체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제공하는 매체이며 유해매체 대상에 TV, 만화, 잡지 등을 위시해 컴퓨터 관련 매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컴퓨터 매체는 더 이상 유익한 정보매체만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상의 음란, 마약, 폭력 등과 관련된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미성년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영상을 동원한 선정적인 내용은 미성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출판물이든 영상물이든 포르노성의 선정적인 내용물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선정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법·제도적인 규제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음매 없는 연결이라는 특성과 인터넷에서는 의사교류에 중점을 둔다는 이유로 이를 법 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법 제도적인 규제를 시도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이 요망되는 이 시점에서 인터넷을 법·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덧붙여 과연 인터넷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내용규제

인터넷 사용인구가 1 억 명을 넘어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 있는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불건전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95 년 타임지 커버스토리로 사이버포르노에 관한 특집기사가 보도된 후에 세계는 인터넷상의 음란적인 정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이 18 개월에 걸쳐 조사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의 분량은 무려 917,410 건이었으며 UseNet 뉴스그룹의 자료 중 83.5%의 사진이 음란물이었다.¹⁾ 이런 이유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매체이지만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치외법권적인 매체일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상에서의 건전한 정보문화를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우선, 인터넷의 홈 페이지 개설과 영상자료의 가미를 들 수 있다. 영상자료물의 등장으로 시각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해지자 많은 음란물 관련사업자들이 인터넷을 보다 쉽게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 유통의 새로운 창구로 간주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제공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용자들이 컴퓨터 접속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속하는 예가 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노출 없이 혼자서 은밀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판잡지나 테이프 이용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이용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저변확대로 인해 과거에는 소수의 계층들, 연구소나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컴퓨터 이용 인구의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음란물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영화나 인쇄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제공되어 왔지만 이들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경로가 필요하고 이 경로를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매체접근을 통제해 왔다. 외설잡지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포르노 테이프를 시청 또는 대여하기 위해서도 나이 확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통